



워싱턴통상정보

2025.02.12

트럼프 관세 정책의 영향 및 목적

한국무역협회 미주본부 워싱턴지부

※ 이하 미국 현지시간

I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자동차 산업 및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

-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·알루미늄 25% 관세부과 조치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예상되며, 특히 자동차 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(경제정책연구소(CEPR) Dean Baker 선임연구원)
 - 일반 차량 1대당 철강 사용량은 약 450kg(6~7천 달러)에 달하여 철강 관세 추가 부과로 차량 가격이 약 1천~1.5천 달러 가량 상승될 것으로 전망
 - 자동차 업계의 미국산 철강 사용이 증가하여도 일부 업체는 외국산 철강의 가격 상승을 기회로 삼아 제품 가격 인상을 고려할 가능성 상존
 - 상기 조치에 이어 현재 30일 유예된 對캐나다·멕시코 관세 조치가 최종 시행될 경우, 일반 차량 가격은 6,250 달러 가량 추가 상승할 수 있음
 - 한편 영국은 트럼프의 철강·알루미늄 추가 관세 부과 관련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발표, EU는 동 관세 조치를 비판하며 단호하고 비례적인 정면 대응을 예고
- CBS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추진으로 인플레이션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보도
 -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·알루미늄 관세와 함께 상호 관세가 실제 시행될 경우, 핵심 개인소비지출(PCE) 물가지수가 0.4%p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*(도이치뱅크)
 - * 트럼프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이어 외국산 자동차, 반도체,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 중
 - 다만, 트럼프 1기 당시 철강 관세 부과 이후 미국내 철강 가격이 단기적으로 상승했으나 국내 수요 감소로 12개월 내 관세 조치 이전 수준으로 하락한 바 있다고 언급

II

미국의 철강·알루미늄 추가 관세, 중국의 우회수출 차단 목적

□ NYT는 외국産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관세가 최종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분석

○ 對美 철강 수출 상위 국가는 캐나다, 브라질, 멕시코, 한국, 독일 순으로 중국은 상위 수출 국가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*

* 2024.9월 바이든 前 행정부는 멕시코 경유 중국産 철강 및 알루미늄에 최대 25% 관세 부과 시행

○ 하지만 중국의 철강·알루미늄 과잉생산으로 인해 미국 산업의 세계 경쟁력이 더욱 악화되는 추세로 자국내 소비처를 찾지 못한 중국産 철강이 캐나다, 멕시코, 베트남 등지로 수출된 중국産 철강 및 알루미늄이 미국으로 재수출되어 옴

-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, 브라질, 인도네시아, 터키 등 역시 중국産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로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응하고 있음

참고 자료

2.11(화) CBS News, Trump orders 25% tariffs on steel and aluminum. Here's what experts say could become pricier ([링크](#))

2.10(월) New York Times, China Is at the Heart of Trump Tariffs on Steel and Aluminum ([링크](#))